

- 주요 뉴스: Fed·ECB·BoJ 총재,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경고
 - 미국 상원 이르면 29일(현지시간)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
 -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, 금년 내 테이퍼링 시행 전망을 재확인
 - 일본 신임 총리,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통화 및 재정정책을 유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정책 전망과 국채금리 향방 등이 영향

주가 강보합[+0.2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하락[-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저가 매수와 경기방어주 강세 등으로 상승, 나스닥 지수는 하락
유로 Stoxx600 지수는 의료보건의 강세 등으로 0.6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으로 1년래 최고 수준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 동안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금리 영향 등으로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8.6원, +6.2원) 0.5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9/29일	9/28일	전일대비			9/29일	9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59.5	4,352.6	0.16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2%	1.54%	-2bp
	유럽	455.03	452.35	0.59%		독일	-0.21%	-0.20%	-1bp
	중국	3,536.3	3,602.2	-1.83%	CDS 5y	한국	19bp	20bp	-1bp
	일본	29,544	30,184	-2.12%		중국	47bp	48bp	-1bp
	한국	3,060.3	3,097.9	-1.22%	위험 지표	EMBI+	-	371	-
환율	달러지수	94.38	93.77	0.66%		VIX	22.56	23.25	-2.97%
	유로화	1.1598	1.1683	-0.73%		WTI유	74.83	75.29	-0.61%
	엔화	111.96	111.50	-0.41%	원자재	구리	417.8	424.5	-1.59%
	위안화	6.4708	6.4603	-0.16%		금	1,726.4	1,734.0	-0.44%
	원화	1,181.8	1,184.4	0.2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Fed·ECB·BoJ 총재,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경고

- 연준의 파월 의장은 공급 차질 등이 미국 경기회복에 역풍으로 작용하고,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다고 지적. 수요 증가와 공급 병목으로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개월 동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한편 연준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, 불일치 상황이라고 지적. ECB 라가르드 총재는 해운 운송,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경우 공급 병목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이러한 문제의 해결 시기는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
-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첨단기술 제품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. 주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내년에 소멸될 것으로 기대하지만,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상원, 이르면 29일(현지시각)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

-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12월 초까지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.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 후 하원에 보내 30일(현지시각) 자정 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

■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, 금년 내 테이퍼링 시행 전망을 재확인

-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는 조만간 테이퍼링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. 다만 이는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.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6.5%를 기록하고, 내년에는 3.5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하면 '상당한 추가 진전'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금년에 자산매입 축소가 적절하다는 의견 피력. 그러나 금리인상의 경우 완전고용 등 기준이 매우 높기에 내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■ 유로존 9월 경기체감지수, 117.8을 기록하며 예상 외로 전월(117.6) 대비 상승

- 유럽위원회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소비자의 경제전망 개선 기대와 건설부문의 고용 확대 계획 등에 기인. 다만 서비스 및 소매부문의 전망 부진은 지속

■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

- 마쿨로프 총재는 공급 차질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, 필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상승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. 다만 지금 당장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첨언

■ 영란은행 총재, 영국 경제는 내년 초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

- 베일리 총재는 해당 전망은 올해 여름에 기대했던 시기보다 1~2개월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. 한편 금리를 통화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

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전력생산을 위해 발전소에 대한 안정적 석탄 공급을 강조

-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동부 주요 지역에서 석탄 수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. 또한 모든 철도기업에 원활한 석탄 수송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지

■ 중국 헝다그룹, 성장은행 지분 매각으로 100억위안 조달할 계획

- 보유중인 해당 은행의 지분 19.93%를 국영기업에 매각하기로 합의. 주요 채권단 가운데 하나인 성장은행은 헝다그룹에 매각자금 전량을 이자지급에 사용하도록 요구. 한편 Fitch는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CC에서 C로 하향 조정

■ 일본 신임 총리,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통화 및 재정정책을 유지

- 기시다 신임 총리는 연말까지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. 다만 시장에서는 기시다 총재의 정부 장악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면 대규모 통화완화 및 재정부양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8.1%, 7월(-2.0%), 예상치(1.4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4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, 2/4분기 성장률 및 PCE 물가
- 미국 9월 시카고 PMI, 독일 9월 소비자물가, 영국 2/4분기 성장률
-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, 차이신 제조업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인플레이션과 공급문제, 주요국 국채금리의 지속적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(Inflation and Supply Shortage Are Waking Up Bond Bears)
 -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, 공급망 불안과 원유수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세 약화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는 양상.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도 오름세
 -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지속.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의 작황부진 영향으로, 각국의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오름세가 일시적인지 채권시장의 관심이 집중
- **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 둔화, 향후 빠른 회복을 전망 - WSJ**
(U.S. Economy Is Expected to Pick Up Speed After Delta-Driven Downturn)
 - 경제학자들은 델타 변이 확산, 공급 차질 등으로 3/4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.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 신호들이 곳곳에 포착. 레스토랑 이용객 수는 월초 대비 감소폭이 둔화되었고, 호텔 예약률도 63%로 8월말 이후 최고치. 항공 여행도 회복 조짐
 - 백신 접종 확대로, 가계는 사상 최대인 142조달러의 순자산을 활용해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. 델타 변이로 인한 소비 감소는 기업들의 재고 증가로 연결되어 공급 부족을 일부 해결. 9월 특별실업급여 만료로 노동력 부족 해소도 기대
 - 아울러 임금인상과 1조달러의 인프라법안 및 3조5천억달러의 예산안은 3/4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을 다시 주도할 것으로 예상
- **채권 매도세 증가, 투자자들에게 시의적절한 경고를 제공 - Financial Times**
(Bond sell-off is a timely warning for investors)
- **미국 정부부채의 해법 교착상태, 예상보다 큰 여파 가능성 상존 - The New York Times**
(What a U.S. Debt Default Would Look Like)
- **금융시스템에 AI 매매 증가, 잠재적 위험 내포에 규제 기관 대응이 필요 - Financial Times**
(Beware the known unknowns when finance meets AI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